



해남 행촌미술관 이마도작업실.



화순 다산미술관 전경.



남포미술관 전시 관람 모습.

# 미술관, 농촌 지역 문화 활력소 되다

행촌미술관과 다산미술관, 남포미술관이 농협중앙회가 후원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농촌 지역사회 기여 박물관·미술관 우수사례 공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이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지역주민 대상 전시·교육·행사 개최 실적과 참여도, 독창성과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총 19개 응모기관 중 최종 3개관을 선정했다.

## 행촌·다산·남포미술관, 지역사회 기여 우수기관 선정 농촌 주민 문화체험 기회 확대...문화로 지역사회 활력

◇행촌미술관, 농촌 유휴공간을 문화재생으로 탈바꿈  
문체부장관상을 받은 행촌미술관(관장 이승미)은 해남종합병원 내 유휴 공간과 섬 지역의 폐교, 지역의 유휴 골프연습장을 각각 미술관과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인 이마도작업실, 수운아트스페이스 등으로 재생해 연간 10회 이상 전시와 공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예술가 40여 명 이상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연간 지역 학생 3,000여 명 이상에게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해남 지역의 역사·문화를 예술작품으로 재

산하는 '풍류남도 해남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전국 예술가 40여 명을 초대하고 해남군 내 유휴 공간이나 녹우당, 대흥사 등과 같은 역사적 공간에서 전시도 열고 있다.  
◇다산미술관, 다산의 중심에서 예술을 외치다  
농협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한 다산미술관(관장 이대경·이정남)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전시·교육 활동을 20여 회 펼쳐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화순 다산마을 인근 초등학생과 선생님, 어르신 등이 직접 예술가로서 참여하는 '다산의 중심에서 예술을 외치다(2017)' 전시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모범 사례가 됐다. 또한 다산미술관은 지역작가발굴전과 청년작가지원전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썼다.  
◇남포미술관, 척박한 땅에 문화예술 씨앗을 뿌리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상을 수상한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은 도서 지역과 복지시설, 군부대 등을 찾아가 미술관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문화를 활발하게 나누고 있다. 최근 3년간 20여 회 이상의 기획전, 지역청년작가발굴전, 원로작가초대전 등을 통해 지역미술계의 활성화에 공헌하

고, 특히 2011년부터 고흥군 내 국립소록도병원과 인연을 맺어 환자과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미술관 음악회, 소록도 대형벽화 제작 등을 추진했다.  
문체부 장관상 수상기관에는 상금 1,000만원, 농협중앙회 회장상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상 수상기관에는 상금 각각 500만 원이 수여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는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농협중앙회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첫 번째 후원 사업이다. 이를 계기로 재정적·물리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후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16일 베토벤 탄생 250주년 첫번째 시리즈  
피아니스트 임현정 협연·객원지휘 권민석

올해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으로, 클래식계에 큰 의미가 있는 해다. 전 세계 모든 아티스트와 교향악단은 교향곡의 황제라 불리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이를 조형하는 음악회에 집중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 역시 오는 16일 열리는 제350회 정기연주회 '2020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념시리즈 첫 시작인 이날 무대에는 권민석이 객원지휘자로 나서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연주한다. 이 곡은 베토벤의 작품 중 환희와 활기찬 분위

기가 가장 찬만하다. 베토벤이 얘기한 "나는 인류를 위해 좋은 술을 빚는 바커스이며 그렇게 빛은 술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으로도 꼽힌다.  
권민석은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에서 고음악과 지휘를 전공했다. 리코더 연주자와 지휘자로 이미 광주시향과 여러 차례 호흡을 맞췄으며 현재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신년음악회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피아니스트 임현정과 협연 무대다. 그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통해 완벽한 음악성과 고



피아니스트 임현정



지휘 권민석

난이도의 테크닉을 보여준다.  
피아니스트 임현정은 2010년 8월 프랑스 파리에서 8일 연속으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 이후 EMI클래식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앨범을 발매했다. 이 음반은 빌보드, 아이튠즈 클래식 차트 1위에 올랐다.  
신년음악회는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보람 기자

##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 지원하세요

피아노·현악·관악·성악부문 독주...내달 10일까지 접수

유·스퀘어문화관이 오는 2월 27-28일 제11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을 개최한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어린 예술가들에게 무대 경험을 쌓게 하고, 음악 영재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음악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금호주니어콘서트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1차례 연주자를 선발하는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은 기악·성악 전공자를 대상으로 테크닉과 음악성, 장래성 그리고 1시간 이상의 독주 가능 여부 등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매년 1차례 연주자를 선발한다. 오디션 합격자는 오는 7-8월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금호주니어콘서트 시리즈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오디션은 광주·전남·전북 출신으로,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부문 독주로 진행되며, 참가자가 5인 미만일 경우 오디션이 취소될 수도 있다. 피아노를 제외한 악기는 개인이 지참해야 하며, 반주자가 필요할 경우 역시 본인이 대동해야 한다.  
유·스퀘어문화관 관계자는 "오디션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금호주니어 콘서트시리즈에 출연함으로써 그간 갖고 있었던 음악적 기량을 무대에서 맘껏 선보이며 전문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전했다.  
오디션 참가 지원은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보람 기자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 함께해요 청년창업!

## 청년의 열정을 복구가 응원합니다.

청년창업이 뿌리내릴 토양마련

청년창업이 움트도록 영양공급

청년창업이 열매 맺을 생태계 조성

광주광역시북구 일자리정책과 T. 410-6578  
GWANGJU CITY BUK-GU